

전북대, ‘메가어스’ 특정업체 5년간 수의계약

5년간 4억8300만원 전액 수의계약
조달청 반려 후 자체 계약 전환
부스 단가 5년 새 15배 상승
MOU 128건...공식 수출 계약 1건

(5)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난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혈세 낭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논란, 특정 업체 독식 의혹 등의 각종 문제점을 10여 차례 집중 보도한다.

/편지자주

전북대학교가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연속 특정 대행사와 전액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에 따르면 2022~2026년 메가어스 엑스포 계약 및 정산 문건에 따르면, 전북대는 5년간 총 4억 8,390만 원(2025년 실적행액 기준) 규모의 기업 부스 지원 용역을 특정 업체 한 곳과 전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계약 추진 과정에서는 조달청의 계약 반려 처분 이후 자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24년 7월 11일 행사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조달청에 1억 3,8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전북지방조달청은 7월 12일 공문(물자구매과-12515)을 통해 ‘행정 소요일수를 고려할 때 요청 기한까지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며 요청서를 반려했다.

전북대는 조달청 반려 직후인 7월 17일 ‘조달청 업무 소요일수 부족에 따른 반려’를 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업체와 1억 3,800만 원 규모의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5년에도 사업 시급성을 이유로 조달청에 구매 위임을 요청한 뒤 자체 수의계약을 집행했다.

전북대는 내부 수의계약사유서를 통해 ‘현지 주최 기관과 단독 수행계약을 맺은 업체여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추고 사후 계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참가 기업 1곳만 지원되는 부스

패키지 단가는 5년 새 15배 가까이 상승했다.

부스당 지원 단가는 2022년 468만~470만 원에서 2023년 550만 원, 2024년과 2025년 600만 원으로 오른 뒤, 2026년에는 700만 원으로 책정돼 468만 원 대비 약 1.5배(49.6%) 올랐다.

부스 1등과 테이블, 의자, 통역 1명 등 기본 지원 내역은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됐으나, 객관적인 원가계산 절차 없이 대행사가 제출한 견적 금액 그대로 계약이 성립됐다.

대규모 업무협약(MOU) 실적에 비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진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결과보고서상 성과 집계에 따르면 2022년은 10개 사가 참가해 6

개 사가 8건의 MOU(구매의향서)를 맺었으나 실제계약은 1개 사(12억 원)였고, 2023년은 10개 사 참가에 8개 사 19건의 MOU를 기록했으나 실제 계약 체결은 1개 사(25억 원)에 그쳤다.

이어 2024년은 20개 사 참가에 27건의 MOU를 확보한 뒤 4개 사가 실제 계약을 맺었으며, 2025년은 15개 사가 참가해 41건의 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계약은 1개 사(50만 달러)에 머물렀다. 2026년 역시 22개 사가 참가해 128건의 MOU를 기록했으나 공식 수출 계약은 1개 사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현지에서 해당 업체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증 문서와 관련 계약 내용을 기업 측에서 제출받아

요건을 충족해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부스 단가 역시 2022년 첫째 470만 원에서 출발한 것은 맞으나, 이후 연도별로 단가가 계속 상승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OU 대비 실적 계약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적 계약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참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부각된 측면이 있다.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행 대행사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민선9기 첫 ‘찾아가는 현장대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민선9기 첫 ‘찾아가는 현장대화’ 일정으로 무주군을 방문해 산업 발전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박지원 “보건산업 신규업체 지원받기 어렵다”

기지원업체 정부 타부처서도 지원
지원기업 가점 비중 해마다 증가
“신규 진입장벽...체계 점검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또 다른 정부부처의 지원을 중복적으로 받는 등으로 신규기업이 지원을 받기 어려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 특허전략·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기업 중 과거 지원 이력으로 가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2023년

22.5%에서 2024년 26.8%, 지난해 38.8%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창업·해외진출 지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혁신창업멤버스의 기지원 가점 기업 비중은 신청단계 20.0%, 선정단계 36.4%였으며,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각 25.4%, 34.4%였다.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에서는 신청기업의 59.0%, 선정기업의 52.8%가 기지원 가점기업으

전북도, 영문 콘텐츠로 세계 공략 전주올림픽 유치 동력 키운다

영문 누리집에 올림픽 뉴스룸 신설
국제스포츠교류·지역행사제공
안전·친환경 등 도시경쟁력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전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글로벌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영문 홈페이지 내 ‘Olympic Newsroom’을 신설,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소식을 비롯해 도의 국제스포츠 교류 활동과 도내 14개 시군 및 체육 유관기관이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주요 행사 등 다양한 스포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문 보도자료를 영문 콘텐츠로 제작해 해외 이용자들이 전북의 스포츠 정책과 주요 활동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림픽 및 국제 스포츠 분야의 주요 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게재해 전북의 스포츠 환경과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영문 누리집의 ‘Jeonbuk Initiatives’를 통해 도정 주요 소식을 활용한 이미지 중심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북의 다양한 매력과 강점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공식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Jeonbuk’과 ‘Jeonju’를 영문으로 표기해 전북·전주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Jeonbuk Initiatives’는 Safe(안전), Hospitality(환대), Green(녹색), CleanEnergy(청정에너지), RenewableEnergy(재생에너지), Ecofriendly(친환경), Netzero(탄소중립), RE100, Legacy(유산), Sports(스포츠), Innovation(혁신), Mobility(모빌리티) 등 글로벌 스포츠 핵심 가치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지 콘텐츠를 구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안전 도시, 스포츠 인프라, 혁신 산업 등 전북·전주의 정책과 도시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기존 음식·전통문화 중심의 지역 이미지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국제사회에서 전북·전주의 차별화된 매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전북·전주의 차별화된 매력을 담은 분야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올림픽·국제 스포츠 분야의 주요 소식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등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전주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종필 전북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전북과 전주가 가진 매력과 올림픽 유치 비전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전주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로, 두 단계 모두 절반을 넘었다.

기업별로 가점을 반복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021~2026년 제출내역에서 A기업(가명)은 전체 선정 10건 중 5건에서 가점을 받았다. 투자유치 기술설명회에서 2024~2026년 3년 연속,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에서 2025~2026년 2년 연속 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기업(가명)도 전체 선정 5건 중 4건에서 가점을 받았으며, 가점 적용 사업은 3종이었다.

진흥원 사업 수행 이력은 다른 부처의 추천기회로도 연결됐다.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에 진흥원이 추천한 기업은 지난해 8개사, 올해 30개사였으며, 금융위의 추가 검토를 거쳐 각각 7개사와 23개사가 최종선정됐다. 올해 추천대상에는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와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업 등

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글로벌 선도기술개발 바이오헬스사업’에서도 ‘성장단계별 기술협력 가속화 지원사업’ 3단계 선정 이력을 추천요건으로 제시했다. 제출시점 최종선정 기업은 없었지만, 해당 이력이 없는 기업은 이 추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동등한 기술성과와 협력실적을 가진 신규기업에도 추천경로가 열려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업별 지원·가점 이력과 가점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고, 가점 부여 전후 점수와 선정 결과를 비교해 신규기업의 진입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타 부처 추천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추천기준과 평가 경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민선9기 첫 ‘찾아가는 현장대화’ 무주서 첫발

이원택 지사, 천마·사과 농가 방문
고부가가치화·생산기반 강화 논의
반딧불사과 유통 경쟁력 제고 모색
매달 시군 순회하며 현장 소통 계획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대화’에 본격 돌입했다.

이 지사는 20일 민선9기 첫 ‘찾아가는 현장대화’ 대상으로 무주군을 찾아 천마산업과 반딧불사과 선별·유통 현장을 차례로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찾아가는 현장대화’는 민선9기 도정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14개 시군의 주요 민생현장과 핵심 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무주군 방문 일정은 지역에서 생

산되는 농특산물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성면에서 농업인과 작목반, 농협,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마산업 발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천마의 기능성 검증과 고부가가치 산업화,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유통·소비 확대 등 천마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농가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천마 수매 현장과 가공공장을 점검한 뒤 무풍면으로 자리를 옮겨 사과 생산자단체, 농협 관계자 등과 사과산업 발전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반딧불사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경쟁력 강화 등 사과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대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사과 선별·출하 과정을 살펴보고 생산 이후 유통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생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민선9기 첫 ‘찾아가는 현장대화’ 대상으로 무주군을 찾았다. 천마사업단 방문. <사진=전북도>

와 유통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천마와 반딧불사과로 대표되는 무주의 농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지

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산업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도정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무주=최의호 기자

전북도, 490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주·완주·새만금 일대 조성
첨단복합소재 국산화 기반 구축
사업화 지원·전문인력 양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490억 원 규모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지난 16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

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첨단 국방기술의 국산화와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45억 원씩 투입된다. 지방비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 부담하며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추진된다.

도는 지역의 탄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내열복합소재, 경량복합소재, 특수기능소재 등 첨단복합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주시 탄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완주군 국가산업단지과 새만금 부안군 일원 등에서 추진된다. 소재·부품·

완제품의 기획과 설계부터 연구·시험, 조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주요 사업은 ▲국방 첨단복합소재 특화형 방산혁신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첨단복합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방산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방산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유지·창업 지원 등이다.

특히 지역 기업들이 방산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조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등 기업 지원도 병행할 방

침이다.

도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전북 탄소산업의 방위산업 진출 필요성과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 통과에 따라 도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도의회 동의와 사업예산 확보,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산화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예산 확보 및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석유공사 완전자본잠식…통합 신중해야”

자본잠식 규모 2조5291억원
가스공사통합 부채 전이 가능성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석유공사가 2025년 말 기준 자산 19조 4,442억원, 부채 21조 9,733억원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2조 5,29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매출 3조 1,365억원에 영업이익 1조 51억원을 올렸으나 이자비용 등으로 당기 순손실이 1조 2,503억원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순이익 2,0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과거 정부의 대형화·해외자원개발 확대 정책에 따라 13조 5천억원을 차입해 투자한 뒤 손실이 커지면서 2025년 기준 연간 이자만 6,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치가 만든 손실을 정치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 공사와 직원의 빚으로 남았다”며 “국가의 자원개발은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직 자원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의 통합 논란과 관련, “상장사인 가스공사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결합은 부채 처리, 소액주주 보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석유공사의 부채가 가스공사 재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박희승 의원

되고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재무논리가 앞서면 E&P(탐사·개발)가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돼 구조조정 1순위가 될 수 있다”며 “석유 탐사·개발 역량은 국내에서 석유공사가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문인력과 그동안 축적된 탐사 자료, 해외 정보가 한번 흘러지면 되살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통합은 석유자원 탐사·개발 기능의 유지·강화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E&P 전문인력·탐사 데이터·해외자산 운영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을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과열화재를 막는 타이머폭발 무료보급사업과 LPG 용기 사용가구의 고부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을 점검하고, 시간이 곧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인 만큼 사업 속도가 중요하다”며 “모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앞당기고, 타이머폭설 치사업은 농어촌 전 지역, 최소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자격 제한 없이 전면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산불 89% 민유림 발생…진화임도 15%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산불의 90%가 민유림에서 발생하지만 산불예방용 임도는 국립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 대부분이 시작되는 민유림의 진화 기반시설 확충이 뒤쳐지지 않도록, 산림청이 산주 동의와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발생한 산불 2,439건 가운데 민유림에서 시작된 산불은 2,178건으로 89.3%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설된 산불진화임도 1,235.7km 중 국유림은 1,057km(85.5%), 민유림은 178.7km(14.5%)에 그쳤다. 민유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73.8%를 차지한다.

특히 2021~2022년 민유림에서 산불 983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기간 민유림에 신설된 산불진화임도는 없었다.



윤준병 의원

2023~2025년에도 신설 거리 중 국유림 비중이 81.5%에 달해 국유림 중심의 확충이 이어졌다.

올해는 민유림 임도 설치 계획이 확대됐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민유림 계획거리 168.3km 가운데 20개 구간 33.69km가 미추진·지연 상태다. 이 중 24.89km는 토지소유자 동의 지연과 노선 조정 등이 원인이며, 세종시 2.5km 구간은 지방비 미편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산주 협의와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해 민유림의 산불진화 기반시설 확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농생명식품산업 AI 전환·수출 경쟁력 강화 모색

농생명식품산업 혁신 포럼 개최
식품제조공정 AI 생산성 향상 논의
수출규제 변화·기업 대응 방안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주대학교에서 행정기관, 농생명식품분과 위원, 농업법인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식품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위원회 농생명식품분과 주관으로, 식품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해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노민환(취대두식품 연구소장)은 ‘농생명식품산업 생산현장의 AI 연계 실용화’를 주제로 식품 제조공정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하는 것이 제품의 품질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동원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농식품산업 수출 규제 이슈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해외 수출규제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농식품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전효진 농생명식품분과 대표인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석(취어울림 농업회사법인 대표)과 문성호(나리찬(취) 농업회사법인 대



<사진=전북도>

표가 참여해 식품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활용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지역 농식품산업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정철 기자

환절기

감기 조심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예방 하세요!!

수분섭취

손씻기

가벼운 운동

체온관리

충분한 수면

실내환기

담배, 과음 줄이기

“범농협 대민 지원 활발” 2(題)



<사진=전북농협>

NH농협 전북본부·전주시지부, 농촌일손돕기

NH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김대호)는 최근 전주시 관내 복숭아 농가를 찾아 수확철 인력부족 해소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농심전심(農心天心)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NH농협 전북본부 농촌지원단과 NH농협 전주시지부 임직원들이 참여해, 수확시기를 맞아 손길이 바쁜 복숭아 농가에서 복숭아 박스 포장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에 힘을 보탰다.

김대호 NH농협 전주시지부장은 “수

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영농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농가 소득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H농협 전주시지부는 시기별·작물별 맞춤형 영농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등을 통해 농가 실익 증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사진=전북농협>

부안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생필품 지원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및 농협자산관리회사(전무 김일한, 전북지사장 이용우)는 지난 19일 ‘우리마을 희망동행’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농협자산관리회사(전무 김일한, 전북지사장 이용우) 등이 함께 했으며, 관내 마을에 생필품을 지원했다.

행사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

기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심전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움을 준 데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김일한 전무는 “어려운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마을에 활력 부여를 위해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시·군별 고용 실태 조사 착수

내년 2월 결과 발표 일자리 정책 자료 활용

전북지역 시·군별 고용률과 실업률 등 지역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된다.

국가데이터저 호남지방데이터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호남·제주지역 4만4천 가구를 대상

으로 ‘202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과 실업률 등 지역별 고용지표를 생산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수립과 고용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가 다른 만큼 시·군별 고용 실

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조사는 인터넷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조사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이며, 면접 조사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가운데 시·군·구별 주요 고

용지표는 내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취업현황은 6월에 각각 공표될 예정이다.

정구현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농업AI 안전·신뢰성 확보 기준 마련

농업용 로봇 확산 대응 오작동 위험·문제 논의

스마트팜과 농업용 로봇 등 농업현장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하면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AI의 판단 오류와 오작동 위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 책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농업기계학회 2026년 추계학술대회 및 ISMAB 2026’에서 ‘신뢰할 수 있는 농업 인공지능, 원격에서 현장까지’를 주제로 특별

분과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윤리적 기준을 검토하고 농업인과 개발자, 전문가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AI는 작물과 가축 관리, 병해충 진단, 농기계 및 로봇 작동, 데이터 기반 재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의 잘못된 판단이나 시스템 오작동이 농작물 피해와 농기계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가 잘못된 재배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업용 로봇이 오작동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피해와 책임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분야다.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와 농업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준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날 특별 분과에는 정책기관과 AI 윤리 전문가, 농업AI 기업, 스마트팜 농가, 대학 및 학회 관계자 등 5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와 농업 분야 정책 방향’ △스마트팜 현장에서 마주하는 AI의 기대와 우려 △농업 특화 AI 서비스 개발과 윤리적 책임 △농업AI 가이드라인 검토 방향 등이 다뤄진다.

이어 전문가 종합토론을 통해 농업AI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과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 부처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영 농촌진흥청 농업선도전략과장은 “농업 현장에 인공지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술 성능과 안전성 확보, 책임 있는 활용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인과 개발자,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제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신협, 독도 보전사업에 2027년까지 16억 지원

금융상품 연계 기부

신협중앙회가 독도 서도 물결과 통행로 정비사업에 2027년까지 약 16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포항과 울릉도, 독도 일원에서 ‘신협 독도원정대’를 운영하고 독도 보전사업 기념행사와 지역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 활성화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협 직원 30명이 참여했다.

신협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독도 서도 물결과 통행로 정비사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독도 서도 물결과 통행로 정비사업은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협은 금융상품과 연계한 기부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약 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신협이 출시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과 ‘독도사랑적금’을 통해 조성된다. 해당 상품의 만기 해지 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계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유산 보전과 독도 수호 활동 등에 후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출시한 ‘독도사랑적금’은 판매한도 10만 좌를 달성하며 출시 12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지난해 8월 출시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도 누적 가입금액 1,306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두 상품 모두 판매가 종료됐다.

신협은 독도 보전사업과 함께 울릉도 지역 문화유산 보호에도 나섰다.

지난 15일 울릉 역사문화체험센터에



<사진=신협중앙회>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기금은 시설 유지·관리와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독도원정대는 독도박물관과 울릉도 도동리 가족을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과 체험 활동도 진행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중진공 호남연수원, 퍼지컬AI 전문인력 양성

실무 중심 교육체계 구축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퍼지컬AI 전문인력 양성이 추진된다. 전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퍼지컬AI 기술을 제조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전경훈)은 20일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에서 제조혁신퍼지컬AI 협회(회장 조용로)와 ‘제조혁신 퍼지컬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조현장의 AI 활용 범위가 생산공정 분석과 품질관리를 넘어 AI와 로봇, 설비가 결합한 퍼지컬AI 분야로 확대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 재직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호남연수원의 교육 기획·운영 역량과 인프라,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 및 기술 전문성을 연계해 제조현장 중심의 인재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퍼지컬AI 직무연수 공동 기획·운영 △회원사 교육 수요 발굴 및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전문강사 발굴과 현장 적용방안 수립 △교육 인프라 연계 △연수생 모집 및 교육성과 공유 등이다.

이를 위해 기업별 AI 활용 수준과 생산·품질·설비 분야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교육은 재직자들이 습득한 기술을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활용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이 추진하는 퍼지컬AI 산업 육성과 맞물려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개설 시기와 참여기업 및 교육 인원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조한교 이사는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 제조기업 재직자가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JB우리캐피탈>

JB우리캐피탈 임직원, 전주시에 2170만원 기탁

전주시는 20일 JB우리캐피탈 임직원 210여 명이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JB우리캐피탈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 JB금융그룹 내 계열사 중 하나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해 총 2170만 원을 전주시를 위해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재원 JB우리캐피탈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임직원들의 마음을 전주시에 전달했으며,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과 김경오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재원 JB우리캐피탈 노조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변함없는 관심과 나눔으로 전주시를 응원해 주시는 JB우리캐피탈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에는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NH농협은행 창구,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정정철 기자

닭의 질소 배출량 예측 활용, 장내 미생물 찾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육계(고기용 닭)의 질소 배출량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 5종을 확인하고, 이들 미생물에서 질소 배출량 예측 관련된 유전자 지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닭이 사료 속 단백질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면 질소가 분뇨로 배출돼 환경 부담을 높인다. 닭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질소 배출을 적게 하려면, 사료의 영양소가 체내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배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진은 생후 1주, 3주, 5주인 육계를 대상으로 사료 단백질 함량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영양소를 이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닭이 성장하면서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 조건에서도 장내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미생물 5종에 주목했다. 이들 미생물은 질소와 탄소화물을 이용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생물 5종과 이들 미생물에서 확인된 관련 유전자를 질소 배출 예측에 활용할 지표로 발굴했다. 이번 연구로 질소 배출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5종을 발굴하고, 이들 미생물의 유전자 지표와 관련된 특히 8건 등록을 올해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이성대 과장은 “닭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불필요한 질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군산 갑오징어와 수제맥주의 만남 30~31일 ‘갑·맥파티’ 개최

군산시는 가을 제철을 맞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군산 갑오징어를 널리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군산비어포트에서 ‘제2회 시월의 마지막 밤,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갑·맥파티’는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지역 수제맥주를 연계한 먹거리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이 가을 밤 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군산의 먹거리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장에서는 군산 갑오징어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안주, 20여 종의 군산 수제맥주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가을밤의 낭만을 더해줄 7080 및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이 행사 기간 내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방문객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수제맥주 전 품목을 10% 할인하고, 갑오징어 진공포장 제품은 최대 30% 할인 판매해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10월 마지막 밤의 정취를 만끽하고 군산 갑오징어의 맛과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2일까지 이륜차 출장검사… 읍·면사무소에서

정읍시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검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 8곳에서 찾아가는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난 19일에는 태인면사무소에서 오전 검사를, 칠보면사무소에서 오후 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20일에는 정우면사무소와 영원면사무소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 검사를 진행했다.

21일에는 고부면사무소에서 오전 검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입암면사무소를 찾는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전 북면사무소와 오후 신태인읍사무소에서 검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다. 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 130여대이며, 검사비는 대당 3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공공건축물 전북도 건축문화상 ‘금은’ 수상

군산시가 건립한 공공건축물들이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시상식에서 공공 부문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뛰어난 건축 디자인과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은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을 통한 건축문화 저변 확대와 창의적 건축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도 대표 건축 시상으로, 사용승인 부문과 계획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에 사용승인 공공부문 금상에 선정된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설계 : 건축사사무소 더함)는 기존의 단조로운 청사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친근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사용승인 공공부문 은상을 수상한 ‘군산시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설계 : 건축사사무소 아이튼)는 다양한 세대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 구성과 효율적인 동선 계획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군산시가 단순한 기능 중심의 공공청사 건립을 넘어 도시 경관과의 조화, 시민 이용 편의성, 건축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온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문화·학습 축제 ‘풍성’ 2(題)

평생학습축제 24~25일 개최

정읍 시민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성과가 공연과 체험으로 펼쳐진다. 정읍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제19회 정읍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고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학습동아리 간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만들고, 체험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대발표회와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

축제 첫날인 24일에는 공원 특설무대에서 개막식과 평생학습 유공자 표창이 진행된다. 이어 12개 팀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무대발표회가 열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무대에서는 시 낭송과 전통무용, 기타 연주, 라인댄스, 벨리댄스, 난타, 색소폰 연주, 악단(밴드)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공원 일원에서 홍보·체험공간 24곳을 운영한다.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시민들이 성과를 나누고, 시민 누구나 다양한 배움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정읍사문화공원을 찾아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평생학습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작 인형극 ‘천년의 사랑’ 공연

백제가요 ‘정읍사’에 담긴 부부의 애틋한 사랑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으로 펼쳐진다.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창작 인형극 ‘천년의 사랑’을 공연한다.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꿈나무 인형극단’이 무대를 맡는다.

‘천년의 사랑’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소재인 ‘정읍사’에 담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친숙한 인형극 형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이야기에 몰입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서관은 온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정읍의 역사와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지역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전 신청은 지난 12일부터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백제가요 ‘정읍사’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친근하게 접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서관 중심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다이로움’ 더 많은 시민 품으로

정부 지원 축소 속 10% 할인 유지 총력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의 올해 할인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나누고 운영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매 한도를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0% 할인 혜택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고물가 속 이용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정된 연간 예산이 조기예 바닥날 위기에 직면했다.

만약 기존처럼 1인당 월 60만 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할인 판매에 예

산은 이미 지난 10월 초·중순에 완전히 동나 지금은 충전 자체가 전면 중단됐을 상황이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도 한도 조정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했다. 지난 6월 기준 다이로움 이용자 중 월 30만 원을 초과해 충전한 상위 57%가 전체 할인 예산의 81.6%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월 30만 원 이하를 충전하는 알뜰 이용자는 43%에 머물렀다.

이에 시는 소수의 고액 충전자가 예산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고,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10월부터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낮췄다.

개인별 최대 한도를 일부 낮추더라도 10% 할인 혜택을 지키면서 더 많은 시민에게 고른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9월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연중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이 다이로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단 한달이라도 더 오래 혜택이 이어지도록 운영 기간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한도 조정 이후에도 시민들의 뜨거운 이용 열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마련된 다이로움 할인 예산은 오는 11월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한도 조정과 조기 종료가 올해 배정된 예산 상황에 따른 ‘한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시는 시민 의견과 실제 소비 패턴,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다이로움 운영 방안을 더욱 탄탄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겨울철 대비 모래함 일제정비

취약구간 집중 점검 모래주머니 1만 개 비치

군산시는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모래함을 일제 정비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과 강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습 결빙구간과 제설 취약지역에 제설 자재를 사전에 확보·비치하고, 겨울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주요 제설노선에 설치된 모래함 368개를 대상으로 시설물 상태와 제설 자체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하거나 파손된 모래함은 보수하거나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설용 모래주머니 1만 개를 제작·비치해 강설이나 도로 결빙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설장비 진입이 어렵거나 제설 작업에 취약한 구간 74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모래함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발굴하는 등 제설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강설 이후에는 도로보수원과 읍·면·

동 자체 제설반 간 협력체계를 통해 모래주머니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제설자재를 신속하게 보충해 지속적인 제설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도로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모래주머니 제작 등 겨울철 제설 준비에 힘쓰는 도로보수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시장은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도로보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제설 작업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관계성 범죄 보호망 넓힌다”

이종연 시의원,지원체계통합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연 의원(비례대표)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일 제2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종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스톱킹·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를 각각 운영하면서 유사한 지원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교제폭력까지 보호 범위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신속한 신고·상담과 보호·지원 연계 △피해자 지원사업 및 비용



이종연 시의원

지원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담당자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

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기존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계획과 사업, 지원결정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지원체계 통합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종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관계성 범죄의 반복·중첩성을 고려해 분산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교제폭력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교육청~정읍향교 보도 정비

걷기 편한 충정로로

정읍시가 오는 26일부터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정읍향교로 이어지는 충정로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수성동 충정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도비 5억 5000만원을 포함

해 총 1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2억 7500만원을 포함한 5억 5000만원이다. 보행자 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정비해 시

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기존 보도를 철거한 뒤 자전거도로는 흙콘크리트로, 보행로는 투수블록으로 포장한다. 빗물 배수용 맨홀 뚜껑과 가로수 주변도 함께 정비해 보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대응 강화

설비 활용 현장훈련

익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에 이어 실제 소화설비를 활용한 현장훈련에 나섰다.

시는 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종사자와 도매시장법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익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실시한 이론 중심의 소방안전 교육을 현장 실습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인화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은 도매시장 현장을 찾아 시설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화재 신고와 대피 절차를 익히고, 소방대원의 지도 아래 시장에 설치된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화설비를 직접 작동하며 사용 방법을 숙지했다.

시는 소방훈련에 이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도 진행했다. 농산물 취급·유통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안내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경찰서, 치안성과 전국 1위

군산경찰서(서장 선 원)는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026년 치안성과 우수경찰서 선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군산경찰서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치안활동과 조직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특히 지난 2016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치안성과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경찰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범죄예방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확보, 민생침해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치

안활동을 전개하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치안 역량을 높이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전국 1위 달성은 특정 부서만의 성과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군산경찰서 전 직원의 헌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선 원 군산경찰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준 직원들과 군산경찰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1위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군산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가을철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2(題)

남원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남원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진화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지역과 농경지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화장비 점검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방송과 현수막,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소각행위를 삼가고 산불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16개 기관 산사태 가정 합동훈련

완주군이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일 재난안전상황실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완주소방서, 완주경찰서, 완주군시설관리공단 등 16개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고산면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완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본부장인 유희태 완주군수가 협업 부서와 관계 기관의 단계별 대응 절차와 공조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동시에 고산자연휴양림에서 펼쳐진 현장 훈련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인 이종훈 부군수 지휘 아래 소방, 경찰, 군부대, 완주보건소 등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 복구 등 실제 대응 절차를 입체적으로 훈련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가 차원의 재난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끌어올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매년 법정무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이다.

완주군은 최근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재난대응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유희태 군수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의 역량을 높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사진=35사단>

35사단, 순창서 호국영령 유해발굴 개토식

육군 제35보병사단(이하 35사단) 예하 백마여단이 20일 6·25전쟁 당시 호남지구 공비 토벌작전에서 한창이던 1951년 8~12월경 지 일대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유해발굴 작전을 시작하며 김광석 사단장 주관으로 개토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토식 행사에는 유해발굴 작전에 참여하는 남원·순창대대 장병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최영일 순창군수 등 지역 기관 및 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성공적인 유해발굴 작전을 기원했다.

이번 유해발굴 대상 지역인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12월경 우리 국군 8·11사단과 경찰 등이 북한의 전북도당 유격대와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과거에도 이 일대에서 유해발굴이 진행돼 다수의 유해와 유품을 발견했다.

35사단 남원·순창대대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5주간 장병 80여 명을 투입해 유해발굴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대동산 무장에 숲길 11월 말 완공 '순향'

순창군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보행약자를 비롯해 누구나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대동산 무장에 나눔길 조성사업'이 오는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체 공사의 약 70%가 진행된 상태로, 군은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산하 한 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복원기금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녹색자금 4억 6,600만 원과 군비 4억 6,600만원 등 총 9억 3,200만원이 투입된다.

대동산 무장에 나눔길은 기존 경천·양지전 산책 공간과 연계해 장애인과 고령자, 유모차 이용객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숲길이다.

특히 숲길 전 구간의 경사도를 8% 이내로 설계하고, 일정 구간마다 교행 공간과 녹색 쉼터를 마련해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산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데크에는 국산 목재를 사용해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숲길 주변의 경관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군은 대동산 일대의 외래 소나무 수종을 정비하고 겹벚나무 등 경관수를 식재하는 한편,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꽃길 동산을 마련해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대동산이 군민들의 생활권 산림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으며 보행약자의 산림 이용 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봉동 둔산공원에서 완주예술제 24일 개막

완주군과 완주군문화예술추진위원회가 오는 24일 봉동을 둔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예술로 울림'을 표어로 '제12회 완주예술제'를 연다.

완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며,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풍성한 문화예술의 향연을 펼친다.

축제의 백미인 개막식 특별축하공연에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흥을 돋운다. 신명 나는 우리 가락을 전하는 이광수 사물놀이를 비롯해 깊은 울림을 전하는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이는 퓨전국악 '차오름', 역동적인 장단으로 무대를 채울 고미자 고고장구 공연이 잇따라 펼쳐진다.

이와 함께 둔산공원 일원에서는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제2회 완주청소년댄스경연대회와 비눗방울 공연(버블 쇼) 등 볼거리가 이어진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작품 전시와 관객 참여형 체험 마당도 모두 무료로 운영해 깊어가는 가을날 군민들에게 풍성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제12회 완주예술제는 군민과 예술인이 하나 되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예술의 깊은 울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순창 어르신에 멸균우유 기탁

순창군은 지난 20일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욱)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멸균우유 5,000팩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이 올해 전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우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멸균우유 5,000팩은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순창군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노인관련 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욱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조합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유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기탁된 우유가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지역 바이오기업 튀르키예 시장 진출 '발판'

남원시가 튀르키예에서 관내 화장품기업 ㈜코빅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리산 천연물 자원과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시장에 알렸다.

시는 지난 18일 중국 티엔스그룹 주최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국제 헬스테크·산업협력 포럼에 참가해 관내 기업 ㈜코빅스의 상품 발표를 지원하고, 남원의 천연물 자원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소개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산업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티엔스그룹은 1995년 중국 텐진에서 설립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헬스케어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코빅스는 지난 7월 티엔스그룹과 8억 원 규모의 화장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상품 발표를 계기로 추가 수출과 해외 유통망 확대가 기대된다.

이은주 신성장산업과장은 “이번 방문이 남원 바이오산업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이서 황토 향어축제 '물량 완판' 성황

완주군 이서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잔디마당 일원에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8회 이서 황토 향어축제'가 군민과 나들이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완주향어영여조합법인과 (사)한국향어양식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축제에는 지난 해(1만 명)보다 20% 늘어난 1만 2천여 명이 다녀가며 가을철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주춧돌 축이 판매용으로 준비한 향어가 조기에 모두 동이 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무대 위치와 행사장 배치를 개선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취식공간에서도 무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해 향어를 맛보며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이서지역 주요 거점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사 장소 제공과 지역주민 가요제 운영 등을 통해 축제에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경영(ESG)의 의미를 더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서, 공동주택 전동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 당부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최근 공동주택 복도에 보관된 전동스쿠터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와 피난통로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배터리 내부 결함이나 외부 충격, 부적절한 충전·보관 등으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등 피난통로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대피로를 가로막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화재 역시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흡입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세조사 권장 충전기 사용 △취침 중 또는 외출 시 충전 자제 △충전 완료 후 전원 분리 △배터리 외부 충격 및 고온 노출 방지 △배터리 팽창·이상 발열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 중단 △공동주택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 내 충전 및 적치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올바른 사용과 보관은 물론,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복도와 계단 등 피난통로를 항상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다운, 전북 건축문화 '대상'

전북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 만족도 97...우수·공공성 인정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이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건축미와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공간 설계를 인정받아 지역 공공건축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거듭났다.

시는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2026년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이 공공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전북 건축문화상은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과 작품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심사에서 '산후케어센터 다운'은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우수한 공간 구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사진=남원시>

241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다운'은 기존 공공기관의 단조롭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외관을 도입해 '고급 호텔형 휴식처' 느낌을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설계 단계부터 전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및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등 각계각층의 감염관리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신생아와 산모가 이용하는 출입구와 일반 방문객이 이용하는 출

입구를 완전히 분리해 외부 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으며, 신생아실 감염 차단 시스템과 효율적인 동선을 구축했다.

또한 친환경 자재를 선택·사용하고 자연 친화적 로비가든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섬세한 배려를 더했다.

다운은 이러한 공간 완성도 덕분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산모들의 만족도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7점이라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남원=정하복 기자

'30돌' 순창 추령장승축제, 전통문화 매력 알린다

24일 북흥면 추령장승촌서 개최 장승깎기·목공체험 등 체험 다채

순창군 북흥면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행사인 '제30회 순창 추령장승축제'가 오는 24일 토요일 추령장승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추령장승축제는 전통 장승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순창추령장승제전위원회(위원장 박용길)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장승을 주제로 한 전시와 민속문화 체험을 비롯해 생활문화예술 공연, 지역 농산물 판매장,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방문객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장승 깎기와 수수빚기, 루 만들기 체험이 마련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생활문화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천연염색과 목공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비롯해 장승 관련 전시와 문화사진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장터도 운영된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부스도 함께 마련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피오리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전북 거점 선정

전국 230개 거점...2년 연속 선정 23일~31일 야간 체험 행사 개최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이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의 전북 지역 6대 거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은 '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

이다. 올해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열리며 전국 230개소 공공디자인 거점에서 진행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피오리움의 야간 행사 '남원의 밤, 피오리움'과 연계해 운영된다. 해당 행사는 24일과 31일 두 차례 진행되며, 공공디자인 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야간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오리움이 행사와 연계해 선보이는 프로그램 '감정의 빛으로 물드는 도시의 밤'은 '빛'과 '감정'을 매개로 시민이 도시 공간에 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감

응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참여자는 빛 팔찌와 캔들, LED 볼, 풍선, 형광 메시지 등 다양한 빛 오브제를 사용해 공동 창작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공간의 미관 개선이나 편의성 향상을 넘어 시민의 감정과 참여가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확장하고, 빛을 매개로 도시와 시민이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피오리움에서는 미디어아트 기획전 '빛으로 만나는 우리 유산'도 만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한 나들이 '가을동행'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일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 등 총 6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 새만금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가을 나들이 '가을동행'을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평소 이동과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새만금의 탁 트인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국립생태원에서 다양한 생태환경과 동식물을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 여행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중하 관장은 "이번 나들이가 이용자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소외된 이웃에 백미 기탁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20일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주시복지재단에 백미 30포(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대원들은 화합과 소방기술 역량을 다지는 경연대회에 나눈 의미를 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를 만들었다.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그동안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에 지원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지역 행사 안전관리,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

/정소민 기자

농협 완주군지부, 하용마을회관 새단장

김중채 농협조합장 “농심전심 마음으로 지원”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희망농촌 정비사업을 통해 화산면 하용마을회관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공동생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산농협(조합장 김중채)이 하용마을의 신청을 받아 추진했으며,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통해 마을회관 정문 사시문 2곳과 부엌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새롭게

정비했다.

김중채 화산농협조합장은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농심전심의 마음으로 지역 농업인과 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천연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장은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는 희망농촌 정비사업을 통해 화산면 하용마을회관의 노후 시설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사진=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남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어르신에 ‘온정 한 그릇’

취약계층 어르신 140여명 참석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와 풍년칼국수가 힘을 모은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무료 점심 나눔 행사가 지난 15일 열려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 예방과 건강한 생활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40여 명의 어르신

이 참석했으며,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특히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행사 운영을 주최하고 풍년칼국수는 식사를 후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구이면, 민관 협업 장애인 가구 환경 정비

사전 협의로 역할 분담

완주군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여러 기관·단체와 손을 맞잡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번 정비에는 구이면과 협의체를 비롯해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대한적십자사, 완주라이온스클럽 등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3명이 거주하는 가구로, 참여 기관·단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3일만에 걸친 정비 작업에 나섰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에너지 취약 겨울나기 지원

정읍사회복지관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30가구의 주거환경과 난방 여건에 맞춰 연료와 용품을 지원하며 겨울나기 준비를 도왔다. 복지관은 지난 12일부터 19일 까지 '2026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했다.

15가구에는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난방유 1드럼을, 나머지 15가구에는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식료품,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5만원

상당의 한과 대비 꾸러미도 전달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들의 안부와 주거환경을 살폈다. 생활속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물품 지원과 함께 세심한 돌봄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맞춤형 에너지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원진알미늄·김양기 씨 고창서 이어진 나눔

고창군은 20일 (취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과 김양기(성내면)씨가 총 3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성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취원진알미늄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양라면 50박스(200만원 상당)를 기탁했으며, 김양기씨는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성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태연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양기 씨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공덕면 존걸마을 어르신 쿠킹클래스 운영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존걸마을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정서적 교류를 위한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 사랑해! 건강하세! 효!’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어르신들의 입맛과 소화기능을 고려한 영양 만점 요리를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심신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소통의 장을 가졌다.

/김제=윤봉기 기자



〈一事一言〉



대통령님, 소나무가 죽어가는데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지난 주말 경남 통영의 욕지도를 다녀왔다. 남해의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빚어낸 풍광은 더없이 수려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길과 바다를 품은 산자락은 도심의 번잡함과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훌훌 털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산자락 곳곳에 붉게 물든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벌써 단풍이 들었나?’ 싶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단풍이 아니었다. 소나무였다. 푸르려야 할 소나무들이 붉게 말라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어떤 곳은 집단으로 고사해 산자락이 온통 붉었다. 참으로 처참했다. 아름다운 섬의 풍경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장에서 고사 원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으로 확산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을 상징해 온 존재다. 사시사철 푸른 기상은 절개와 지조의 표상이었고, 마을 어귀의 노송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켜왔다. 그 소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숲이 사라진다는 것은 산림 생태계의 파괴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의 상실이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 지경이 되도록 국가의 방제정책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점이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의 탐사보도는 충격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산림청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방제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새로운 방제기술의 검증 과정마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 남이섬에서는 천적 곰팡이를 주입한 이후 소나무와 잣나무의 고사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경북 영덕의 한 송이산에서도 소나무

5,000그루에 천적 곰팡이를 주입한 뒤 새롭게 고사한 나무가 20그루에 불과했다는 산주의 증언이 나왔다. 죽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던 소나무 일부가 회복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물론 이러한 사례만으로 천적 곰팡이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완전히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마땅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6년 제주도에서 실시된 천적 곰팡이 효과 검증 실험을 둘러싼 의혹이다. 보도는 실험 현장에 외부인이 제초제를 살포한 정황이 있었고, 실험도 당초 계획보다 일찍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제초제 살포가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 절차는 공정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의 기술 검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산림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과학적 근거로 반박하면 된다.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소나무가 붉게 말라 죽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존 농약의 예방효과가 일부 확인됐다는 사실과 국가 전체의 방제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는 별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소나무를 살렸고, 피해 확산을 얼마나 막았느냐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기존 방제방식의 권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소나무다. 산림청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정책이라 해서 그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부족하다면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면 검증해야 한다. 행정의 체면과 조직의 관성이 숲의 생존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님, 우리 산하의 소나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산림청의 대응만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재선충병 피해 실태와 방제예산 집행, 기존 정책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천적 곰팡이를 비롯한 대체 방제기술도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된 기술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가 부족한 방식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어느 기관의 주장이 옳느냐를 다투는 동안에도 숲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수백 년을 건넌 노송도 병들어 죽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 번 무너진 숲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 지난 주말 욕지도에서 보았던 붉은 소나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산은 곳곳에서 죽음의 빗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을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소나무가 죽어 산이 붉어지는 것은 비극이다. “대통령님, 산림청의 보고서보다 먼저 죽어가는 숲을 보십시오. 방제 실적보다 붉게 말라버린 소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책 발표가 아니다. 실패한 것은 바로잡고, 가능한 대안은 철저히 검증해 실천하는 국가의 결단이다. 숲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통령의 결단도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

ㅣ 독자투고 ㅣ

황혼의 로맨스? 당신의 황혼을 노리는 ‘로맨스 스캠’



“혼자 지내시느라 외로우시죠?” 홀로 지내는 노년층에게 접근해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손길. 그러나 따뜻한 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의 평생 저축을 노린 변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 기승을 부

리고 있다. 범죄자들은 SNS나 문자메시지, 소모임 앱을 통해 접근하여 이성적 호감이나 친분을 쌓은 뒤 감정적 신뢰를 악용한다.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자신을 해외 상류층, 은퇴를 앞둔 재력가, 또는 외로운 재외국민이라 소개하며 매일 다정한 안부를 건넨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노후를 함께 보낼 아파트를 사자”, “확실한 수익이 나오는 해외 투자처가 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한 통관비가

부족하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물론, 자식들에게 말도 못 한 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송금하는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단 하나다. 얼굴 한번 직접 보지 않은 상대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 권유를 시작한다면 100% 범죄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자녀나 주변 이웃, 또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황혼을 밝혀줄 진짜 인연은 결코 당신의 통장과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김재경경찰서 신흥지구대 경사 박재원

사설

전북도 조직개편, 속도보다 절차와 명분이 먼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증 없이 개편을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조직개편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절차적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도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공무원 162명이 늘어나고 향후 5년간 848억여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조직개편이 도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적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AI홍보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행정 혁신과 홍보 기능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조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해야 할 만큼 행정수요가 증가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 더욱이 신설 국장 자리를 둘러싼 특정한 내정설까지 제

기된 만큼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경계하되 의혹을 해소할 책임 역시 전북도에 있다. 재정 부담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소방 인력 확충처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증원은 일반 행정 조직 확대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반면 일반직 증원과 새로운 기구 설치의 업무 중복 여부와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조직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인건비는 해마다 반복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신설 기구의 필요성과 재정 추계,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행정조직은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전북도는 논란이 제기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조직개편은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오늘의시

가을 / 강은교

기쁨을 따라갔네
작은 오두막이었네
슬픔과 돌이 살고 있었네
슬픔이 집을 비울 때는
기쁨이 집을 지킨다고 하였네
어느 하루 찬 바람 불던 날
살짝 가보았네
작은 마당에는 붉은 감 매달린 나무 한 그루
서성서성 눈물을 줍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산, 날개를 펴고 있었네
산이 말했네
어서 가보게, 그대의 집으로.....

시인 약력 : 1945년 함남 홍원 출생. 서울서 성장하며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대 교수를 역임했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순례자의 집’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1975년 제2회 ‘한국문학상’, 1992년 제37회 ‘현대문학상’, 2006년 제18회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빈자일기’ ‘벽 속의 편지’ 등이 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인후지사 010-8840-8855		익산지국 010-9580-3075	
발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무주지국 010-8411-0835	
		임실지국 010-8842-8502	
		진안지국 010-2433-1721	
		장수지국 010-8826-6049	
		순창지국 010-5312-7293	
		부안지국 010-7247-3947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3672-0308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완주군 WANJUGUN

완주물

신선함 가득! 완주로컬푸드를 만나요

완주물

완주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

신선한 로컬푸드

믿을 수 있는 생산자

건강한 먹거리

완주물 바로가기

완주물



완주로컬푸드

완주에서 자란 건강한 푸드



안심 먹거리

완주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



산지직송 배송

신선한 먹거리를 집앞까지 배송